

한국 영재교육 연구의 현황 및 성과: 2003-2012

이 상 희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최 선 일

영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1,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 계획 시기인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0년간의 영재교육 연구, 동향 및 연구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영재교육 관련 연구 성과와 경향 및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영재교육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전문정보 사이트와 한국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영재를 키워드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82종 1,696편의 학술지 논문, 총 138편의 박사학위 논문, 총 1,470편의 석사학위 논문, 75개 기관 총 798편의 동향 및 연구보고서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학술지 및 학위 논문과 동향 및 연구보고서를 크게 연구대상, 영재분류, 연구주제,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영재교육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은 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주제로, 양적연구의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영재교육 10년간의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으며, 향후 국내 영재교육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연구현황, 연구동향, 영재, 영재교육

I. 서 론

2002년 3월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이 시작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제1,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하여 기반 마련과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왔다. 제1,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실시된 지난 10년간의 시기는 영재교육의 도입과 발전의 시기였으며, 2013년부터 시작된 제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2017년까지를 영재교육의 도약기로 보고, 영재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교육부, 2013). 이와 같은 영재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의 배경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의 기여가 적지 않다. 영재교육 관련 연구들은 특정 이슈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지속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부각시키며, 이를 통해 이 분야에 부각되는 새로운 과제들을 발견하게 한다(한기순, 양태연, 2007).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 관련 연구들은 영재교육 관심분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연구물들이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준다(박경빈, 2012). 나아가 영재교육 정책·제도·실행의 명분을 제공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재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영재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의 기반이 된다.

영재교육 연구 현황 분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 분석 연구는 그 양이 매우 한정적이며, 분석을 위한 대상 연구물들도 한정적이라는 것이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가령, 기존의 영재교육 연구 현황 분석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술지 논문을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로 한정하고 있다. 연구의 질적 관리와 엄격함을 위하여 연구의 대상을 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등재(후보)지 수록 논문들 이외에도 영재교육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 연구물들은 많이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영재교육을 위해 수립된 2003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이후부터 발간된 모든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면, 영재교육에 대한 동향과 방향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위 논문 작성자가 영재교육 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등 모든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연구보고서와 국가기록물은 국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준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국가보고서와 국가기록물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시대별로 영재교육 정책의 흐름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재교육이 법제화 된 후 등장하게 된 모든 영재교육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영재교육의 면모를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되어 갈 영재교육의 방향성을 추론하되, 보다 바람직한 영재교육 실현을 위하여 영재교육 연구가 담당해야 할 내용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영재교육 연구의 성과를 고찰한다. 영재교육 연구는 학술지 게재논문, 학위 논문, 단행본, 동향 및 연구 보고서, 국가기록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집단, 연구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재교육 관련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19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 약 8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2013년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이버 전문정보 사이트(<http://academic.naver.com>)에 ‘영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200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 동향 및 연구 보고서, 국가 기록물, 단행본 등을 1차 정리하였다. 키워드 검색의 특성상 ‘영재’라는 키워드에 ‘영재교육’이라는 키워드까지 모두 검색이 가능하므로 ‘영재교육’ 키워드 검색은 실행하지 않았다. 제2차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5월 14일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사이트(<http://www.riss.kr/index.do>),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사이트(<https://ged.kedi.re.kr/>)에서 200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의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동향 및 연구보고서, 국가기록물 등을 정리하였다. 2차 자료 수집 이후 2013년 5월 16일부터 2013년 6월 15일까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비교·대조하며 통합 정리하되, 정리 과정에서 자료의 누락이나 중복, 해당 자료 포함의 타당성 여부 등을 다시 점검하였다.

2. 분석 틀

<표 1>은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이다. <표 1>은 한기순, 양태연(2007)의 연구와 박경빈(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틀을 본 연구에 맞도록 종합 및 수정하여 적용한 것이다. 연구대상에는 유아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영재교육의 대상자와 학부모 및 교사, 전문가 등 영재교육 관련자, 문헌 등 11가지의 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영재분류에는 수학 / 과학영재 등 6가지의 분류체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주제에는 전망과 기대·방안·동향·제도 등 12가지의 분류체계를, 연구방법에는 실험연구 외 8가지 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표 1>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을 위한 분류 체계

분류	내용					
연구 대상별	1. 유아	2. 초·중등	3. 중학생	4. 고등학생	5. 대학생	6. 학부모
영재 분류별	1. 수학/과학영재(정보영재 포함)			2. 언어영재	3. 예술 및 체육영재	
연구 주제별	4. 미성취 영재	5. 소외(장애) 영재	6. 기타(유아 및 구분 없는 영재집단 전체)			
방법별	1. 전망과 기대·방안·동향·제도	2. 영재성의 요인/발달		3. 영재특성(인지)		
	4. 영재특성(사회/심리)	5.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6. 영재교육 평가		
	7. 선발 및 관별	8. 창의성	9. 문제해결력·문제발견력		10. 부모/가족	
	11. 교사	12. 외국 사례				
연구 방법별	1. 실험연구	2. 조사연구(특성)	3. 조사연구(실태)	4. 조사연구(인식)	5. 관계연구	
	6. 질적연구	7. 문헌 고찰 및 제언		8.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검사도구 타당성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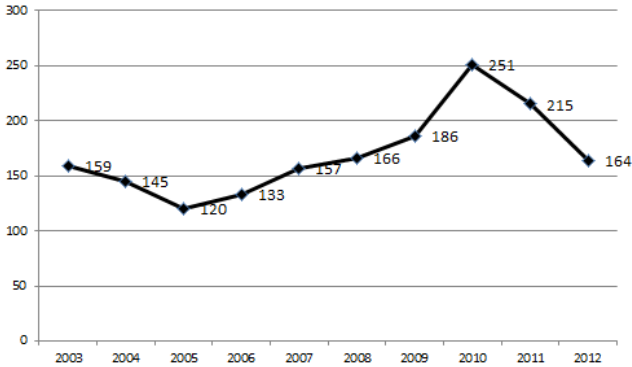
III. 연구결과

1. 학술지 논문 연구 결과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제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총 1,69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 종류는 총 182종이다. 먼저, 연도별로 발표된 학술지 논문 수는 [그림 1]과 같다.

2003년 이후 학술지 논문은 2010년까지 비교적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양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특히 2010년에는 한 해 250편이 넘는 영재교육 관련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면서, 영재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2012년을 거쳐 오면서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학술지 논문의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편)



[그림 1] 연도별 학술지 논문 수

영재교육 관련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 목록은 <표 2>와 같다. 학술지의 총 종류는 182종으로 영재교육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들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영역의 학술지에서 영재교육이 연구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초기 영재교육이 수학·과학 영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영재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영재교육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학술지 목록 및 논문 수

학술지 명	편
영재교육연구	290
과학교육	143
영재와 영재교육	135
수학교육	118
국제과학영재학회지	63
과학영재교육	62
초등과학교육	48
수학교육학연구	47
한국생물교육학회지	26
교육심리연구	24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한국실과교육학회지, 과학교육연구지	23
아시아교육연구	22
정보교육학회논문지,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논문집	21
아동교육, 한국지구과학학회지	19
중등교육연구	18
순천향인문과학논총	17
과학교육논총	16

학술지 명	편
과학과기술, 수학교육프로시딩, 한국교육학연구,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14
초등교육연구(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미술교육논총	12
창의력교육연구, 과학교육논총	11
교육연구, 새물리	10
미래유아교육학회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한국교원교육연구, 아동학회지	9
광주교대초등교육연구, 교육개발, 한국발달심리학회지, 과학교육뉴스레터, 교과교육학연구, 사고개발	8
과학교육연구지, 교사교육연구	7
아동미술교육, 한국무용교육학회지, 한국기술교육학회지, 초등교육학연구, 대안가정학회지	6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상담학연구, 한국교육, 한국교육학연구, 유아교육논총, 교과교육연구	5
한국무용기록학회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학회지, 브레인, 교육방법연구, 교육과정연구, 어문학교육, 창조교육논총, 교육과학연구, 이화학술논집, 한국 초등교육, 초등교육연구, 과학교육연구논총,	4
한국어교육학회지, 실과교육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교육평가연구, 교육원리연구, 교원교육, 체육과학연구, 청소년 행동연구, 음악과문화, 과학교육연구보, 대한공업교육학회지, 생활과학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교육논총, 21세기사회복지연구	3
습지와 생명, 한국스포츠학회지, 교양교육연구, 과학교육연구논총, 국어교육연구, 교육사상연구, 인문학연구(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교육연구논총, 교육문제연구, 교육문화연구, 초등교육연구, 음악과민족, 열린교육실행연구, 교육학논총,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특수교육연구, 교육융합연구, 교육논총, 교육이론과 실천, 비교교육연구(한국비교교육학회), 한국발육발달학회지, 미술교육연구논총, 교수-학습개선편자자료개발	2
아동권리연구 외 75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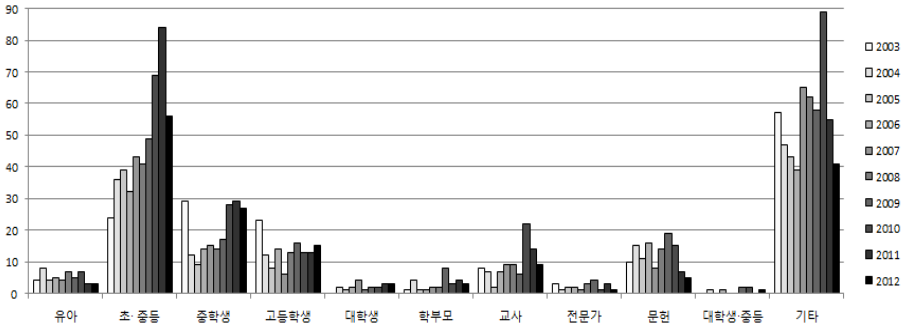
연도별 연구 대상 분포는 <표 3> 및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초·중학’은 초등학교 영재와 중학생 영재를 함께 연구한 경우를 의미하며, ‘대학생·중학’ 또한 대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연구한 경우이다. 연구에 따라서는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등 학교 급별로 연구 대상을

<표 3> 학술지 논문 연도별 연구 대상 분포

(단위: 편)

연도	유아	초·중	중학	고등	대학	부모	교사	전문가	문헌	대학·중학	기타	합계
2003	4	24	29	23	0	1	8	3	10	0	57	159
2004	8	36	12	12	2	4	7	1	15	1	47	145
2005	4	39	9	8	1	1	2	2	11	0	43	120
2006	5	32	14	14	2	1	7	2	16	1	39	133
2007	4	43	15	6	4	2	9	1	8	0	65	157
2008	7	41	14	13	1	2	9	3	14	0	62	166
2009	5	49	17	16	2	8	6	4	19	2	58	186
2010	7	69	28	13	2	3	22	1	15	2	89	251
2011	3	84	29	13	3	4	14	3	7	0	55	215
2012	3	56	27	15	3	3	9	1	5	1	41	164
합계	50	473	194	133	20	29	93	21	120	7	556	1,696

(단위: 편)



[그림 2] 학술지 논문 연도별 연구 대상 분포

구분하지 않고 연구한 경우들, 예컨대 영재성에 대한 정의를 고찰하거나 영재의 일반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한 연구 대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로 구분하였다. 연도별 연구 대상은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별도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문헌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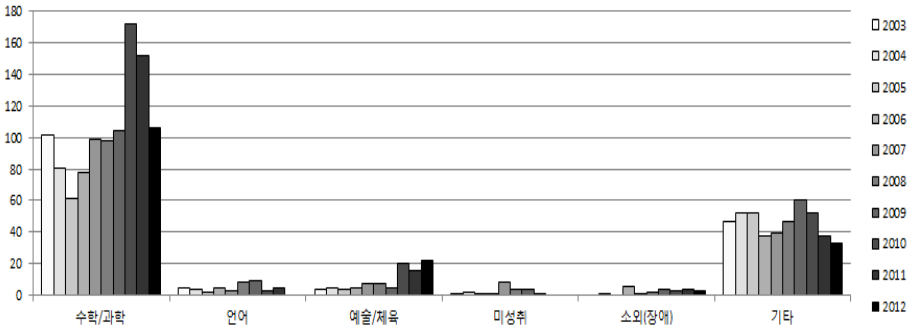
<표 4>와 [그림 3]에서 보듯이 연도별 연구 영역 분포에서는 수·과학 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시행되었다. 상대적으로 언어 및 예술·체육 등의 교과 분야에서의 연구는 부족하였지만, 2010년도 이후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영재를 포함한 인문·사회 분야의 영재와 특수 영재에 속하는 미성취 및 소외(장애)영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에는 수학·과학, 언어, 예술·체육, 미성취, 소외(장애)영재 등 영재의 영역별 분류에 속하지 않고,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진행한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가령, 영재교육의 최근 이슈에 대한 논의(이신동, 고운정, 2010)와 같은 논문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표 4> 학술지 논문 연도별 연구 영역 분포

(단위: 편)

연도	수학/과학	언어	예술/체육	미성취	소외(장애)	기타	합계
2003	102	5	4	1	0	47	159
2004	81	4	5	2	1	52	145
2005	61	2	4	1	0	52	120
2006	78	5	5	1	6	38	133
2007	99	3	7	8	1	39	157
2008	98	8	7	4	2	47	166
2009	104	9	5	4	4	60	186
2010	172	3	20	1	3	52	251
2011	152	5	16	0	4	38	215
2012	106	0	22	0	3	33	164
합계	1,053	44	95	22	24	458	1,696

(단위: 편)



[그림 3] 학술지 논문 연도별 연구 영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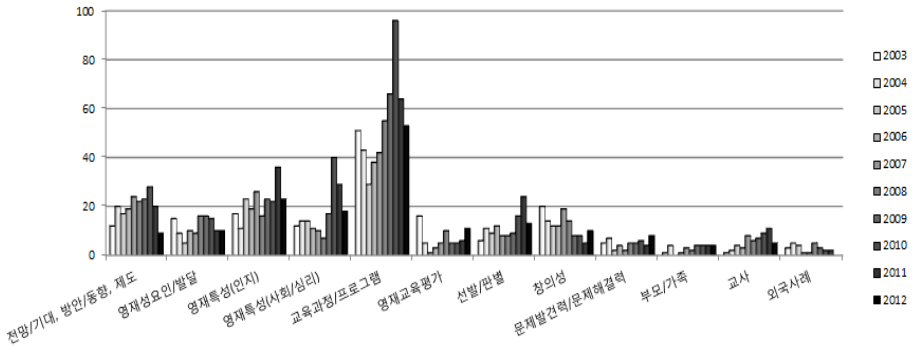
<표 5>와 [그림 4]에서는 연도별 연구 주제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연구 주제는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영재의 인지적 특성, 전망 / 기대·방안 / 동향·제도, 영재의 사회·심리적 특성, 창의성, 선발·판별, 영재성 요인 / 발달 등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특성 및 영재성 요인 / 발달에 대한 연구는 모두 합하여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연구한 숫자보다 적을 만큼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학술지 논문 연도별 연구 주제 분포

(단위: 편)

연도	전망 등 제도	영재성 요인/ 발달	영재 특성 (인지)	영재 특성 (사회/ 심리)	교육 과정 프로 그램	영재 교육 평가	선발 /판별	창의성	문제 해결력	부모 /가족	교사	외국 사례	합계
2003	12	15	17	12	51	16	6	20	5	1	1	3	159
2004	20	9	11	14	43	5	11	14	7	4	2	5	145
2005	17	5	23	14	29	1	9	12	2	0	4	4	120
2006	19	10	19	11	38	3	12	12	4	1	3	1	133
2007	24	9	26	10	42	5	8	19	2	3	8	1	157
2008	22	16	16	7	55	10	8	14	5	2	6	5	166
2009	23	16	23	17	66	5	9	8	5	4	7	3	186
2010	28	15	22	40	96	5	16	8	6	4	9	2	251
2011	20	10	36	29	64	6	24	5	4	4	11	2	215
2012	9	10	23	18	53	11	13	10	8	4	5	0	164
합계	194	115	216	172	537	67	116	122	48	27	56	26	1,696

(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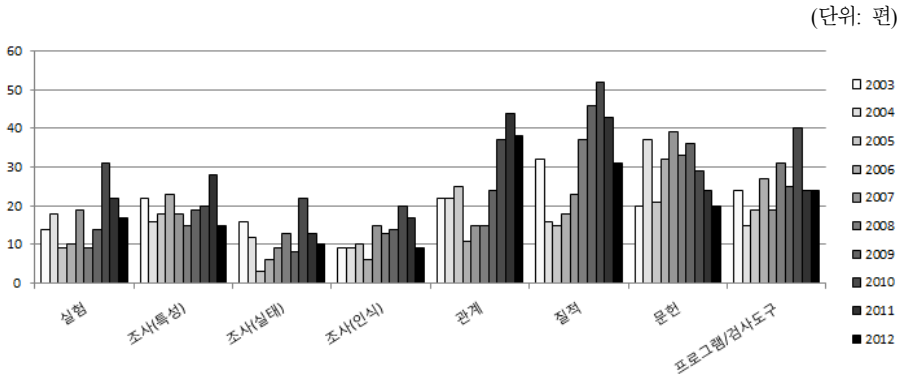
[그림 4] 학술지 논문 연도별 연구 주제 분포

조사연구는 조사연구(특성), 조사연구(실패), 조사연구(인식)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조사연구와 관계연구는 양적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표 6>과 [그림 5]에서 질적 연구, 문헌 고찰 및 제언 연구, 프로그램 및 검사도구 연구, 조사연구(특성), 조사연구(인식), 조사연구(실패)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양적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질적 연구, 문헌 고찰 및 제언 연구, 프로그램 및 검사 도구 연구, 실험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연구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질적 연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표 6> 학술지 논문 연도별 연구 방법 분포

(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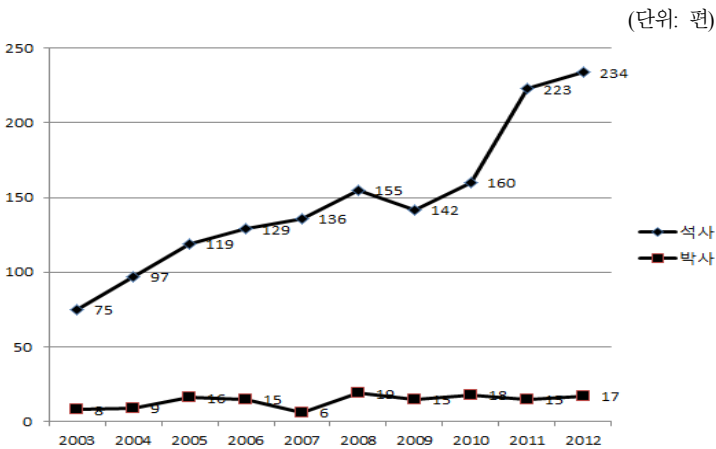
연도	실험 연구	조사 연구 (특성)	조사 연구 (실패)	조사 연구 (인식)	관계 연구	질적 연구	문헌 고찰 및 제언	프로그램 및 검사도구	합계
2003	14	22	16	9	22	32	20	24	159
2004	18	16	12	9	22	16	37	15	145
2005	9	18	3	10	25	15	21	19	120
2006	10	23	6	6	11	18	32	27	133
2007	19	18	9	15	15	23	39	19	157
2008	9	15	13	13	15	37	33	31	166
2009	14	19	8	14	24	46	36	25	186
2010	31	20	22	20	37	52	29	40	251
2011	22	28	13	17	44	43	24	24	215
2012	17	15	10	9	38	31	20	24	164
합계	163	194	112	122	253	313	291	248	1,696



[그림 5] 학술지 논문 연도별 연구 방법 분포

2. 학위 논문 연구 결과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연도별 학위 논문 수는 [그림 6]과 같다. 총 논문의 수는 1,608 편이었으며, 박사학위 논문 138편, 석사학위 논문 1,470편으로 분석되었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편차는 있으나, 매년 대략 15편 이상이 발표되고 있다.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2009년도를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12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연도별 학위 논문 수

<표 7>과 [그림 7]에는 연도별 연구 대상 분포가 나타나 있다. 학위 논문의 연도별 연구 대상 분포도 학술지 논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초·중학’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편중 현상이 더 심하다. 또한, 유아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학술지 논문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족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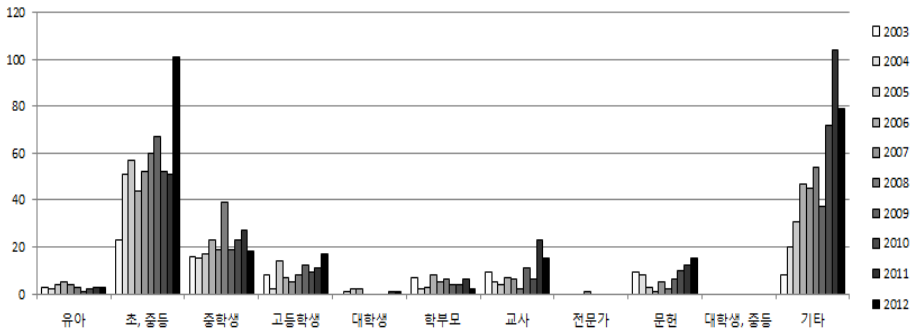
알 수 있다. 대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학술지 연구 현황 분석과 상이한 특징이다.

<표 7> 학위논문 연도별 연구 대상 분포

(단위: 편)

연도	유아	초,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문헌	대학생, 중학생	기타	합계
2003	3	23	16	8	0	7	9	0	9	0	8	83
2004	2	51	15	2	1	2	5	0	8	0	20	106
2005	4	57	17	14	2	3	4	0	3	0	31	135
2006	5	44	23	7	2	8	7	0	1	0	47	144
2007	4	52	19	5	0	5	6	1	5	0	45	142
2008	3	60	39	8	0	6	2	0	2	0	54	174
2009	1	67	19	12	0	4	11	0	6	0	37	157
2010	2	52	23	9	0	4	6	0	10	0	72	178
2011	3	51	27	11	1	6	23	0	12	0	104	238
2012	3	101	18	17	1	2	15	0	15	0	79	251
합계	30	558	216	93	7	47	88	1	71	0	497	1,608

(단위: 편)



[그림 7] 학위 논문 연도별 연구 대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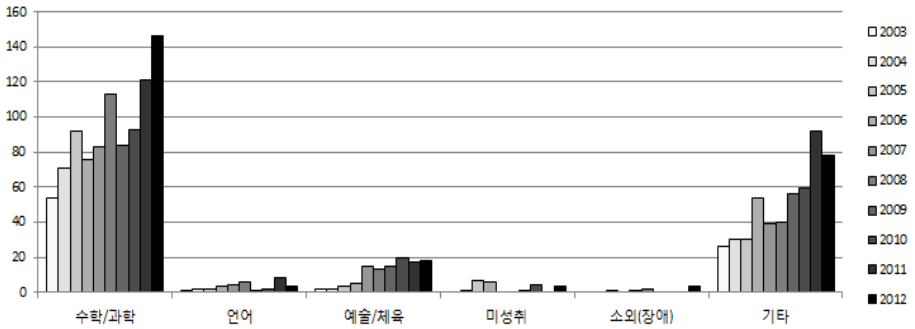
학위 논문에서 연도별 연구영역 분류 분포는 학술지 논문의 연도별 연구 영역 분포와 거의 유사하다. 학위 논문 또한 수학·과학 영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학·과학 영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다음으로는 기타, 예술 / 체육 영재, 언어 영재, 미성취 영재, 소외(장애) 영재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8>과 [그림 8]에 제시하였다.

<표 8> 학위 논문 연도별 연구 영역 분포

(단위: 편)

연도	수학/과학	언어	예술/체육	미성취	소외(장애)	기타	합계
2003	54	1	2	0	0	26	83
2004	71	2	2	1	0	30	106
2005	92	2	3	7	1	30	135
2006	76	3	5	6	0	54	144
2007	83	4	15	0	1	39	142
2008	113	6	13	0	2	40	174
2009	84	1	15	1	0	56	157
2010	93	2	20	4	0	59	178
2011	121	8	17	0	0	92	238
2012	146	3	18	3	3	78	251
합계	933	32	110	22	7	504	1,608

(단위: 편)



[그림 8] 학위 논문 연도별 연구 영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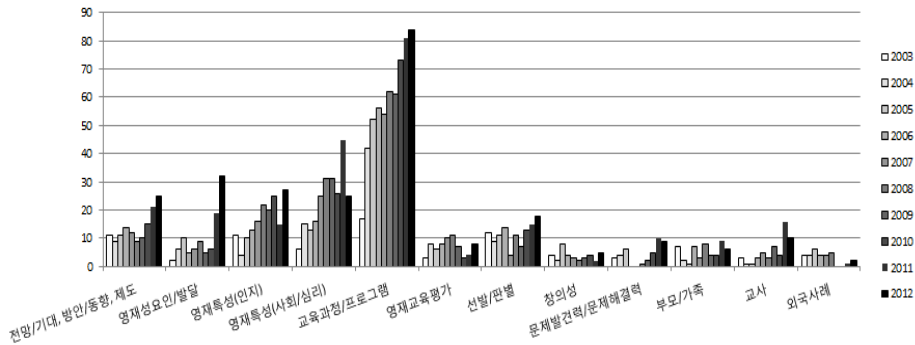
<표 9>와 [그림 9]는 학위 논문에서 연도별 연구 주제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 결과이다. 학위 논문에서도 학술지 논문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영재의 사회 및 심리적 특성, 영재의 인지적 특성, 향후 전망·기대, 방안, 동향·제도, 선발 및 관별, 영재성 요인·발달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 주제들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가 발전하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지만, 창의성, 외국사례, 및 영재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의 발전은 매우 미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9 > 학위 논문 연도별 연구 주제 분포

(단위: 편)

연도	전망 등 제도	영재성 요인 발달	영재 특성 (인지)	영재 특성 (사회/심리)	교육 과정 프로그램	영재 교육 평가	선발/관별	창의성	문제 해결력	부모/가족	교사	외국 사례	합계
2003	11	2	11	6	17	3	12	4	3	7	3	4	83
2004	9	6	4	15	42	8	9	2	4	2	1	4	106
2005	11	10	10	13	52	6	11	8	6	1	1	6	135
2006	14	5	13	16	56	8	14	4	0	7	3	4	144
2007	12	6	16	25	54	10	4	3	0	3	5	4	142
2008	9	9	22	31	62	11	11	2	1	8	3	5	174
2009	10	5	20	31	61	7	7	3	2	4	7	0	157
2010	15	6	25	26	73	3	13	4	5	4	4	0	178
2011	21	19	15	45	81	4	15	2	10	9	16	1	238
2012	25	32	27	25	84	8	18	5	9	6	10	2	251
합계	137	100	163	233	582	68	114	37	40	51	53	30	1,608

(단위: 편)



[그림 9] 학위 논문 연도별 연구 주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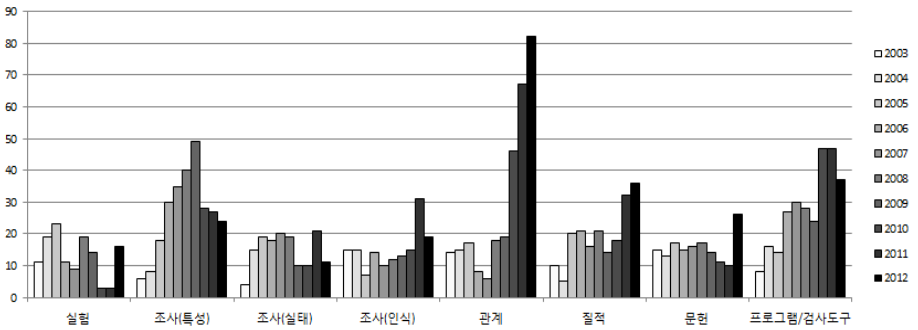
학위 논문에서 나타난 연도별 연구 방법 분포는 <표 10>과 [그림 10]에 제시되어 있다. 학위 논문에서는 관계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검사 도구 타당성 연구, 조사 연구, 질적 연구, 실험 연구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학술지 논문에 비해 질적 연구, 문헌 고찰 및 제언 연구의 비중이 적은 반면, 프로그램 개발 및 검사도구 타당성 연구나 관계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영재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과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많이 시행되어, 보다 깊은 수준의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10> 학위 논문 연도별 연구 방법 분포

(단위: 편)

연도	실험 연구	조사 연구 (특성)	조사 연구 (실태)	조사 연구 (인식)	관계 연구	질적 연구	문헌 고찰 및 제언	프로그램 및 검사도구	합계
2003	11	6	4	15	14	10	15	8	83
2004	19	8	15	15	15	5	13	16	106
2005	23	18	19	7	17	20	17	14	135
2006	11	30	18	14	8	21	15	27	144
2007	9	35	20	10	6	16	16	30	142
2008	19	40	19	12	18	21	17	28	174
2009	14	49	10	13	19	14	14	24	157
2010	3	28	10	15	46	18	11	47	178
2011	3	27	21	31	67	32	10	47	238
2012	16	24	11	19	82	36	26	37	251
합계	128	265	147	151	292	193	154	278	1,608

(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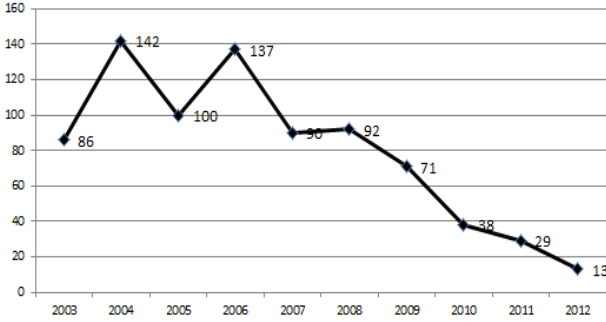


[그림 10] 학위 논문 연도별 연구 방법 분포

3. 동향 및 연구 보고서 분석

연도별 동향 및 연구 보고서의 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동향 및 연구 보고서의 총 분석 대상은 798편이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발간된 동향 및 연구 보고서가 가장 많았다. 이것을 볼 때, 동향 및 연구보고서에서는 영재교육 시행 초기에 시행을 위한 이론과 내용들을 체계화 시키는 것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도 이후 동향 및 연구보고서의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2년도에는 13편만 발간되었다.

(단위: 편)



[그림 11] 연도별 동향 및 연구 보고서 수

<표 11> 동향 및 연구보고서 발간처 목록 및 연구 보고서 수

(단위: 편)

발간처	편
한국교육개발원	176
교육과학기술부	71
한국과학재단	64
강원도교육청	37
부산광역시교육청	35
한국개발연구원	30
대한민국국회	26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25
충청북도교육청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7
전라북도교육청	15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교육청	14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13
특허청	12
한국학술정보	10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상남도교육청	9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경기도과학교육원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기도교육청	7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6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전라남도교육청, 법제처, 대전교육연수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충청남도교육청, 경기개발연구원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스포츠리서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기상청,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인적자원부	2

발간처	편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TRA, 한국과학영재지원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기술위원회,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국가청렴위원회, 광주광역시, 경상북도교육연구원, 경상남도, 경남발전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통일부, 탐라교육원, 국립국악원, 부산광역시영재교육연구회,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충청남도, 전국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장협의회, 유네스코	1

<표 11>은 동향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발간처 별 연구 보고서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 보고서를 가장 많이 발간한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강원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향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은 총 75개 기관으로, 매우 다양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들이 영재교육 관련 동향 및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영재교육 시행을 위하여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동향 및 연구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영재교육에 대하여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예술, 기술 등 학문의 전 분야를 총 망라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및 [그림 12]에 제시된 것은 연도별 연구 대상 분포 분석 결과이다. 동향 및 연구보고서의 연구 대상의 분포는 기타, 문헌, 초·중등 및 중학생,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 대상 분포에서 기타는 연구 대상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영재교육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구분하는 범주이다. 따라서 동향 및 연구 보고서의 빈도에서 기타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이유는 동향 및 연구보고서가 특정 대상을 연구 하는 것이 아니라, 영재교육 전반에 대해 연구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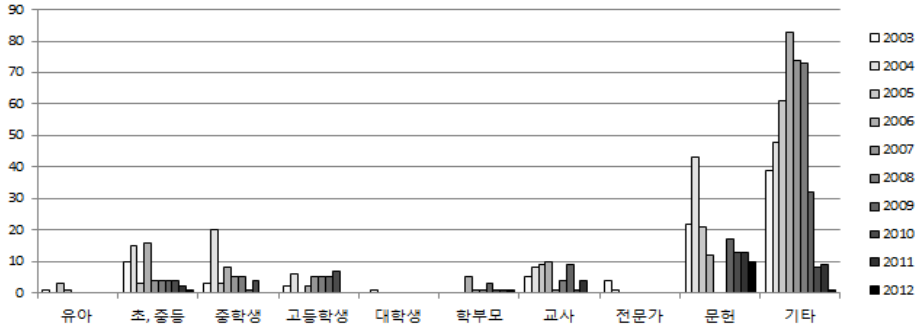
동향 및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특징들이 나타났다. 첫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다. 이는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교

<표 12> 동향 및 연구 보고서 연도별 연구 대상 분포

(단위: 편)

연도	유아	초, 중학생	중 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문헌	대학생, 중학생	기타	합계
2003	1	10	3	2	0	0	5	4	22	0	39	86
2004	0	15	20	6	1	0	8	1	43	0	48	142
2005	3	3	3	0	0	0	9	0	21	0	61	100
2006	1	16	8	2	0	5	10	0	12	0	83	137
2007	0	4	5	5	0	1	1	0	0	0	74	90
2008	0	4	5	5	0	1	4	0	0	0	73	92
2009	0	4	1	5	0	3	9	0	17	0	32	71
2010	0	4	4	7	0	1	1	0	13	0	8	38
2011	0	2	0	0	0	1	4	0	13	0	9	29
2012	0	1	0	0	0	1	0	0	10	0	1	13
합계	5	63	49	32	1	13	51	5	151	0	428	798

(단위: 편)



[그림 12] 동향 및 연구 보고서 연도별 연구 대상 분포

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동향 및 연구 보고서의 빈도 순위가 학술지 및 학위 논문에 비해 높았다. 이는 영재교육 초기 영재교육 시행을 위한 교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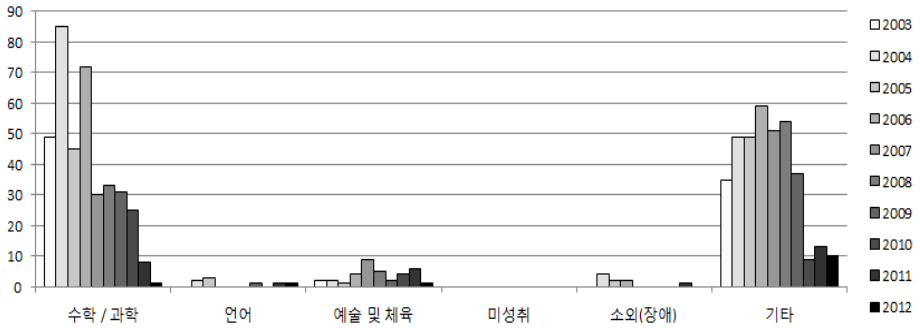
연도별 연구 영역 분포의 분석 결과는 <표 13> 및 [그림 13]과 같다. 동향 및 연구보고서 분석 결과에서도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수학·과학 영재들을 위한 연구들이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영재, 예술 및 체육영재, 미성취 영재, 소외(장애) 연구의 수는 없거나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한 영재 분류 없이 영역별 영재들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기타의 연구가 수학·과학 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슷한 정도의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향 및 연구보고서가 영재교육 전반에 걸친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연구 대상자 분포와 일맥상통한다.

<표 13> 동향 및 연구 보고서 연도별 연구 영역 분포

(단위: 편)

연도	수학/과학	언어	예술/체육	미성취	소외(장애)	기타	합계
2003	49	0	2	0	0	35	86
2004	85	2	2	0	4	49	142
2005	45	3	1	0	2	49	100
2006	72	0	4	0	2	59	137
2007	30	0	9	0	0	51	90
2008	33	0	5	0	0	54	92
2009	31	1	2	0	0	37	71
2010	25	0	4	0	0	9	38
2011	8	1	6	0	1	13	29
2012	1	1	1	0	0	10	13
합계	379	8	36	0	9	366	798

(단위: 편)



[그림 13] 동향 및 연구 보고서 연도별 연구 영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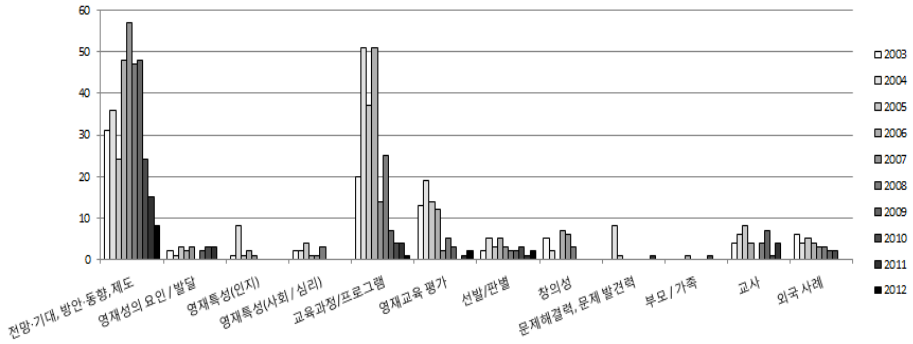
동향 및 연구보고서의 연도별 주제 분포는 <표 14>, [그림 14]와 같다. 분석결과는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에서와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에서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로 나타났으나, 동향 및 연구보고서에서는 전망 및 기대, 방안, 동향 및 제도가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것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영재교육 평가 순이었다.

<표 14> 동향 및 연구 보고서 연도별 연구 주제 분포

(단위: 편)

연도	전망 등 제도	영재성 요인/ 발달	영재 특성 (인지)	영재 특성 (사회/ 심리)	교육 과정 프로그램	영재 교육 평가	선발 /판별	창의성	문제 해결력	부모 /가족	교사	외국 사례	합계
2003	31	2	1	2	20	13	2	5	0	0	4	6	86
2004	36	1	8	2	51	19	5	2	8	0	6	4	142
2005	24	3	1	4	37	14	3	0	1	0	8	5	100
2006	48	2	2	1	51	12	5	7	0	1	4	4	137
2007	57	3	1	1	14	2	3	6	0	0	0	3	90
2008	47	0	0	3	25	5	2	3	0	0	4	3	92
2009	48	2	0	0	7	3	2	0	0	0	7	2	71
2010	24	3	0	0	4	0	3	0	0	1	1	2	38
2011	15	3	0	0	4	1	1	0	1	0	4	0	29
2012	8	0	0	0	1	2	2	0	0	0	0	0	13
합계	338	19	13	13	214	71	28	23	10	2	38	29	798

(단위: 편)



[그림 14] 동향 및 연구 보고서 연도별 연구 주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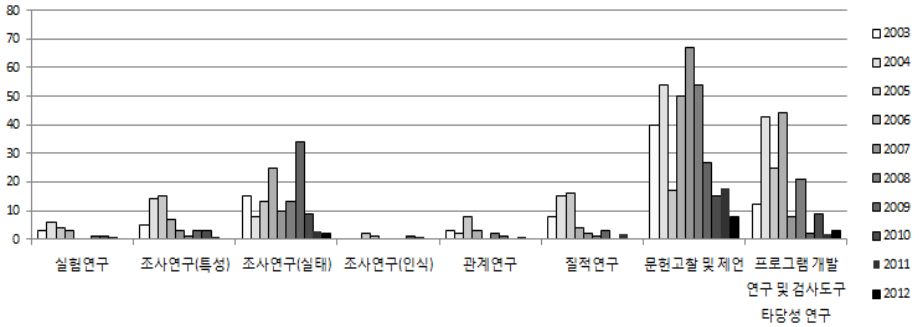
<표 15> 및 [그림 15]에서 알 수 있듯이 동향 및 연구 보고서의 연도별 연구 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연구 주제 분포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술지 및 학위 논문과는 이질적이다. 문헌 고찰 및 제언의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및 검사도구 연구, 영재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었다. 특히, 영재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15> 동향 및 연구 보고서 연도별 연구 방법 분포

(단위: 편)

연도	실험 연구	조사 연구 (특성)	조사 연구 (실태)	조사 연구 (인식)	관계 연구	질적 연구	문헌 고찰 및 제언	프로그램 및 검사도구	합계
2003	3	5	15	0	3	8	40	12	86
2004	6	14	8	0	2	15	54	43	142
2005	4	15	13	2	8	16	17	25	100
2006	3	7	25	1	3	4	50	44	137
2007	0	3	10	0	0	2	67	8	90
2008	0	1	13	0	2	1	54	21	92
2009	1	3	34	0	1	3	27	2	71
2010	1	3	9	1	0	0	15	9	38
2011	1	1	3	1	1	2	18	2	29
2012	0	0	2	0	0	0	8	3	13
합계	19	52	132	5	20	51	350	169	798

(단위: 편)



[그림 15] 동향 및 연구 보고서 연도별 연구 방법 분포

V. 논의 및 시사점

영재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학술 연구는 해당 분야에서 특정 시기에 문제가 되는 이슈들을 반영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의 여러 관점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정책이 새롭게 기획되고, 기획된 정책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특정 분야의 초창기라면 학술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재교육 분야에서 지난 10년간의 학술 연구의 성과는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발전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영재교육 관련 학술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영재교육 관련 학술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 연구의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학술 연구의 양적인 성장 내용을 학술 연구 분야별로 살펴보면, 학술지 논문이 2003년도에 159편으로 시작하여 2010년도에는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251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술지 논문 중 영재교육 관련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 논문의 종류도 총 182종으로, 매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영재교육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학위 논문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003년도 83편에 불과하던 영재교육 관련 학위 논문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도에 251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박사 학위 논문은 매년 20편 내외로 발표되었지만, 석사 학위 논문은 2003년도에 75편에서 2012년도에 234편으로 증가하여 양적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학술 연구의 풍부한 양적 성장은 영재교육의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학술 연구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영재교육이 시행될 때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며, 수많은 논의를 통하여 일반화된 이론들을 정의해 나감으로써 사회적인 함의를 지니게 하는 것에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술 연구의 질적 성장도 이루어졌다. 영재교육 시행 체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의 영재교육은 초·중등 학생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특정 영역의 소수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피라미드 및 종적 체제를 근간으로 한다. 학술지 논문의 분석에서 전체의 약 40% 정도, 학위 논문에서는 약 48%의 논문이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위한 연구를 진행 하였는데, 이는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많이 교육하고자 하였던 영재교육 추진체제의 근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영역에 있어서는 학술지 논문 및 학위 논문 모두에서 수학 및 과학 영재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주제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재교육과정에 집중하여 영재교육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부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질적 문제를 예방하고 조치하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별히 동향 및 연구 보고서에서는 초기 영재교육 시작 시기에 약 100여 편 이상의 동향 연구보고서의 발간으로 영재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며, 75개의 중앙 정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범국가적인 영재교육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향 및 연구 보고서에서는 특정 대상을 연구하기보다 모든 영재교육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영재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주제에 있어서도 전망 및 기대, 방안 및 동향과, 제도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동향 및 연구보고서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다양성과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영재교육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가능한 질적 연구 및 중단 연구 등이 시도되고 확대되고 있으며, 수학 및 과학 분야의 영재 학생들에 한정되었던 연구도 언어, 예술 및 체육과 다른 학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영재교육 초기, 영재교육 관련 소수의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오다가, 현재는 다수의 영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영재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 함으로써 영재교육이 더 이상 특별하거나, 엘리트층을 위한 교육이 아닌 보편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영재교육은 법률적 토대를 기반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1,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마무리 되고,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창조적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도약기 단계에 접어들었다(제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013). 따라서 영재교육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지식 기반 사회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역할을 요청 받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영재교육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 성과 분석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영재교육 성과 분석 연구는 영재교육이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왔는지 파악하게 하며, 영재교육의 시행 적합성과 방향성을 도출해 낼 수 있게 한다. 기존 영재교육 성과 분석 연구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주기에 맞추어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보다 빈번한 성과 분석 연구가 필요하며, 종합 성과 분석 연구와 더불어 세부적인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가령, 수학·과학 영재교육 및 기타 학문 분야에 따라, 그리고 유아·초등·중등·고등·대학생 등 영재교육 대상 분류에 따라

영재교육의 성과 분석을 세분화 하여 진행한다면, 영재교육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시사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재교육의 성과는 투입 예산, 영재교육 담당 기관 수, 영재교육 수혜자 수 등 양적 준거로만 판단할 수 없다. 영재교육 관련 행정가, 영재교육 담당 교원, 학부모 학생 등 영재교육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이러한 정성적 평가가 정량적 평가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정확한 성과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영재교육 성과 분석 연구는 이처럼 세분화 되어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위한 성과 분석 준거 또한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도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영재교육 관련 성과 연구는 특정 시점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영재교육 이수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 현황,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과 성과, 대학 졸업 이후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 등의 면모들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영재교육 제도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영재교육의 교육과정에 대한 광의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영재교육은 영재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그 외의 시간에 영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pull-out 제도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영재교육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 연구나 각 영재교육 시행 기관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개별 프로그램들 사이의 중복과 비연계성, 각 영재교육기관별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연계성 및 융통성 부재, 일반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부재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다.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일반화·보편화 되어 일반 교육 현장에서도 영재교육 인식과 방법론이 널리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와 학교 내에서의 영재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재교육 기관들 사이, 일반학교와 영재교육기관들 사이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체계성 및 연관성에 대한 연구, 일반학교에서의 영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전주기적 영재교육 체제의 구축에 대한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영재교육 시행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셋째, 보다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영재교육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를 위한 학문적 협력이 필요하다. 수학·과학 영역은 국가의 발전 및 생존에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먼저 시행할 우선순위가 있다고 여겨져 왔으므로, 지금까지의 영재교육은 수학·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학·과학의 기술은 다른 학문 영역과 결합하여 적용될 때, 보다 효율적이고 큰 가치 창조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최근 들어 일고 있다. 창조경영 또한 기술적 우수성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며, 기술의 상품화 가능성, 디자인, 마케팅 등 종합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학·과학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영재교육 연구도 보다 활발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 교과 영역 분야에서만 아닌 교과를 통합하는 간 학문적인 영역에서의 영재교육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교과 영역을 뛰어 넘어 학문 간의 협력을 통한 영재교육 연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한국영재학회 혹

은 영재교육학회 같은 영재교육 관련 학회들과 한국경영학회, 한국디자인학회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의 학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연구 한다면, 한층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어 영재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소외 및 장애 영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영재 판별은 일차적으로 교사의 추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확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영재 판별은 ‘성적 우수자’ 혹은 ‘태도 우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영재교육 선진 국가인 미국 등에서 시행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영재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영재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문제 행동이 없거나 적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영재들은 영재가 소유하고 있는 인지적·정서적·신체적 특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판별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그들의 잠재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많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에 대한 영재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영재교육 기관에 입학 후 다른 학생들과의 학력 격차는 또 다른 영재교육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미성취 영재 및 유교적 문화로 인해 소외되는 측면이 있는 매우 우수한 여학생들을 위한 연구도 병행하여, 소외 및 장애 영재학생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들의 잠재성을 계발할 기회를 주며, 교육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재교육 연구를 위하여 영재교육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재교육은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영재교육 현황과 영재교육 관련 데이터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집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여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기관 성격상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 또한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어떠한 의무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재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영재교육을 수행하고 연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매우 어렵다. 또한, 각 기관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재교육과정이나 영재교육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여 양질의 영재교육을 도모하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포함한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규정을 영재교육 관련법에 명시하고,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2013).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네이버 전문정보 사이트 <http://academic.naver.com/>(검색일 2013. 4. 19 ~ 2013. 4. 30)

- 박경빈 (2012). 한국 영재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영재교육연구**, 22(4), 823-840.
- 이신동, 고운정 (2010). 영재교육의 최근 이슈에 대한 논의. **인문과학논총**, 25, 189-218.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 <http://www.riss.kr/index.do>(검색일 2013. 5. 1 ~ 2013. 5. 14)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 베이스 사이트 <https://ged.kedi.re.kr/>(검색일 2013. 5. 1 ~ 2013. 5. 14)
-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2 영재교육 통계연보**.
- 한기순, 양태연 (2007). 최근 국내 영재교육 연구의 흐름: 2000~2006년도 연구물 분석. **영재교육연구**, 17(2), 338-364.

= Abstract =

Comprehensive Review of Research Publications on Gifted Education in Korea : 2003-2012

Sang Hee Lee

Greenlife Intellectual Network

Sun Ill Choi

Youngd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on gifted education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dissertations and research reports, as well as an analysis of the trends and milestones achieved related to gifted education. The period from 2003 to 2012, from which the data for this literature review was collected, marks the ten-year period proposed by the Gifted Education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II and I.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earch of the keyword "gifted" on Academic Naver and on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Results showed 1,696 articles from 182 academic journals, 138 doctoral dissertations, 1,470 masters' dissertations, and 798 research reports from 75 institutions. For analysis, each article was classified by target of study, kind of giftedness, subject of study, and methods used for the study. Results from this literature review demonstrated that from 2003 to 2012, the articles from the 182 academic journals and the doctoral and masters' dissertations used quantitative research to analyz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gifted in math and science as well as the curriculum and programs of their study. This paper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gifted education within the country.

Key Words: Status of research, Trend of research, Gifted person, Talented person,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1차 원고접수: 2015년 10월 8일
수정원고접수: 2015년 12월 31일
최종게재결정: 2015년 12월 31일